



#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김건모"

해적 ☀[해] ☾[달] ☆[별] 실력가늌자 ✍\_1711호



슬픈노래는 듣고 싶지 않아. 내맘속에 잠들어 있는. 네가 다시 나를 찾아와. 나는 긴긴밤을 잠 못 들 것 같아. 이렇게 비가 오는 밤이면. 내지친 그리움으로 널 만나고. 이비가 그치고 나면. 난 너를 찾아 떠나갈 거야.  
1711\_[문법]+[상춘곡]+[님의 침묵]+[참회록]+[조웅전]+[우상의 눈물]+[국물 있습니다]



(가)

- 01 말소리는 변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변하기도 한다. 또, 개인에 따라 발음을 달리하기도 한다. 말소리가 변하는 현상을 음운의 변화라고 한다. 이러한 음운의 변화를 더 자세히 구별하면 통시적(通時的)인 것과 공시적(共時的)인 것으로 나뉜다. 흔히, 통시적인 변화를 ‘**㉠변천(變遷)**’이라 하고, 공시적인 변화를 ‘변동(變動)’; 또는 ‘**변이(變異)**’라 한다.
- 02 일반적으로, 통시적 음운 변화는 변화의 성격상 자생적(自生的) 변화와 결합적(結合的) 변화로 대별된다. 자생적 변화란, 음운 자체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변하는 것이며, 결합적 변화란 음운의 환경이나 음운이 결합되는 조건 등으로 말미암아 변하는 것이다. 공시적인 음운 변화도 마찬가지로 자생적 변동과 결합적 변동으로 나뉜다. 그러나 공시적인 변동의 경우는 대부분이 결합적 변동이고, 자생적 변동은 많지 않다.
- 03 결합적 변동은 다시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결정적(決定的) 변동**과 임의적(任意的)으로 일어나는 **㉡수의적(隨意的) 변동**으로 나뉜다. 음운은 일정한 환경 아래에서는 예외 없이 일정한 음운으로 바뀌는 것이 있는데, 비음(鼻音) 앞에 오는 /ㄷ/은 예외 없이 /ㄴ/으로 변하는 것이 결정적 변동의 예이다. 반면, 특수한 경우에만 바뀌는 것이 있는데, 불규칙 활용의 경우 음운 변동은 경우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는데, 이는 수의적 변동에 해당한다.

(나)

- 01 음운 변화는 현저한 규칙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규칙성은 언어의 역사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 원칙이 되어 왔다. 음운 변화는 흔히 조건(條件) 변화와 무조건(無條件) 변화로 분류되어 왔다. 어떤 음의 변화가 그 인접어(隣接語)의 영향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을 때 이것을 **㉠조건 변화**라 하며 이런 조건 없이 일어나는 변화를 무조건 변화라고 한다. 조건 변화에는 동화(同化), 이화(異化) 등이 있다.
- 02 동화는 어떤 음의 영향으로 다른 음이 그것과 닮게 되는 현상으로 **㉣앞의 음이 뒤의 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순행 동화)**와 **㉤그 반대의 경우(역행 동화)**가 있으며 또 이들 두 음이 서로 붙어 있는 경우(인접 동화)와 떨어져 있는 경우(원격 동화)가 있다. 국어에서 몇 예를 들면, 근대 국어에서 양순 자음 뒤의 ‘ㄹ’이 ‘ㄷ’로 변한 것은 순행 인접 동화, 중세 국어에서 ‘ㄴ’ 위의 ‘ㄷ’이 ‘ㄴ’으로 변한 것과 근대 국어의 구개음화는 역행 인접 동화의 예이다. 이화의 예는 매우 드물다. 국어에서는 고대의 ‘**흐를**[一日]; ‘**므를**[棟]’ 등이 중세 국어에서 ‘**허를**’, ‘**므를**’ 등이 된 것이 이화의 예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음운 도치도 이화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 03 이러한 조건 변화가 부분적임에 대하여, 무조건 변화는 전반적이다. 가령 중세 국어에서 전기와 후기 사이에 일대 모음 추이(推移)가 일어난 것은 무조건 변화의 한 예이다. 한 음소가 분화하여 두 음소가 되든가, 두 음소가 합류하여 한 음소가 되든가, 음소들의 대립 관계가 새로워지든가 해서 음운 체계에 변천이 일어나는 것이다.

**01\_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동화와 이화는 조건 변화에 해당한다.
- ② 음운 변화는 개인차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 ③ 공시적인 음운 변화는 주로 결합적 변화이다.
- ④ 불규칙 활용에 나타나는 음운 변화는 자생적 변화이다.
- ⑤ 중세 국어에서 모음 추이가 일어난 것은 무조건 변화이다.

**02\_(나)의 ㉠과 의미가 같은 것을 (가)에서 찾으면?**

- ① 음운의 변화
- ② 통시적인 변화
- ③ 공시적인 변화
- ④ 자생적 변화
- ⑤ 결합적 변화

**03\_㉠~㉤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예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두 개]**

- ① ㉠: 중세어 ‘**ᄃᆞᆫ**[秋]’이 현대어 ‘가을’로 바뀌었다.
- ② ㉡: ‘**쏟는다**’는 /ㄷ/이 /ㄴ/ 소리로 변하여 **【쏟는다】**로 발음된다.
- ③ ㉢: ‘**묻다**[埋]’는 ‘**묻어**’, ‘**묻으니**’ 등으로 활용하지만, ‘**묻다**[問]’는 모음 앞에서 ‘**물어**’, ‘**물으니**’ 등으로 활용한다.
- ④ ㉣: ‘**국민**’은 발음 과정에서 /ㄱ/이 /ㅇ/소리로 변하여 **【국민】**으로 발음된다.
- ⑤ ㉤: ‘**불능**(不能)’은 /ㄴ/이 /ㄹ/ 소리로 변하여 **【불릉】**으로 발음된다.



독서형>02>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04 한글은 세종이 주도하여 창제한 세계적인 문자로서 세계 문자 역사상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40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됨으로써 한글이 만들어진 원리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 훈민정음의 원리에 대한 연구로 학위를 받은 미국 컬럼비아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 게리 레드야드는 자신의 학위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글자 모양과 기능을 관련시킨다는 착상과 그 착상을 실현한 방식에 정녕 경탄을 금할 수 없다. 유구하고 다양한 문자의 역사에서 그런 일은 있어 본 적이 없다. 소리 종류에 따라 글자 모양을 체계화한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다. 그런데 그 글자 모양 자체가 그 소리와 관련된 조음(造音) 기관을 본뜬 것이라니! 이것은 견줄 데 없는 언어학적 호사(豪奢)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 05 ‘소리의 종류에 따라 글자 모양을 체계화’했다는 레드야드의 말은 무슨 뜻인가? 이는 조음 기관을 본뜬 ㉡기본 글자 다섯(ㄱ, ㄴ, ㄷ, ㅅ, ㅇ)에다 한 획씩 더하는 방식으로 글자를 생성하여 그 글자들이 계열화를 이루게 하였다는 뜻이다. 예컨대 연구개음(여린입천장소리)인 ‘ㄱ’에 획을 더해 같은 연구개음이되 거센소리 글자인 ‘ㅋ’을 만들고, 입술소리인 ‘ㄴ’에 획을 차례로 더해 같은 입술소리이되 새로운 자질(資質)이 더해진 ‘ㄵ’과 ‘ㅍ’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 06 이 점은 로마 문자와 비교해 보면 한글에 함축된 음운학 지식이 얼마나 깊고 정교한지 금방 드러난다. 예컨대 이나 잇몸에 혀를 댔다 떼면서 내는 소리들을 로마 문자로는 ‘N, D, T’로 표시하지만, 이 글자들 사이에는 형태적 유사성이 전혀 없다. 그러나 한글은 이와 비슷한 소리를 내는 글자를 ‘ㄴ, ㄷ, ㅌ’처럼 형태적으로 비슷하게 계열화함으로써, 이 소리들이 비록 자질은 다르지만 소리나는 곳은 같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 준다. 이 말은 이미 훈민정음 창제자들은 음소(音素) 단위의 분석에서 더 나아가, 현대 언어학자들과 같이 음소를 다시 자질로 나눌 줄 알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 07 모음을 생성하는 방식도 매우 과학적임을 알 수 있다. 자음과 마찬가지로 ㉢모음의 기본자(ㅇ, ㅡ, ㅣ)를 만든 후, 이 기본자의 어울림으로 초출자(ㅏ, ㅑ, ㅓ, ㅕ)를 만들고, 이 ㉣단모음 7자를 다양하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글자 모양과 소리(이중·삼중 모음)를 생성한 것이다. 여기에다 빼놓을 수 없는 한글의 장점은, 모음의 소리값이 항상 일정하다는 점이다. ㉤우리의 모음은 축약(縮約)의 경우가 아니라면 언제 어느 때라도 일정한 소리를 유지하게 되어 있다. 영어 ‘A, E, I, O, U’가 각종 단어에서 얼마나 다양한 소리를 내는지를 고려해 보면 우리 한글이 얼마나 익히기 쉬운 우수한 문자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2004학년도\_04월\_독서\_中

01\_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한글은 의미를 중심으로 글자의 모양이 생성되었다.
- ② 한글의 자음은 기본자를 합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 ③ ‘ㄴ, ㄷ, ㅌ’은 자질은 같지만 소리나는 위치는 다르다.
- ④ 영어나 로마자는 글자 모양과 소리값이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 ⑤ 한글은 음소 단위에서 더 나아가 자질로 나눌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02\_ 위 글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음의 소리값이 일정하다.
- ② 모음의 생성 방식이 체계적이다.
- ③ 자음의 형태와 소리값이 계열화를 이룬다.
- ④ 자음과 모음의 모양이 대응 관계를 이룬다.
- ⑤ 자음을 조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03\_ ㉠~㉤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으면서 혀가 휘어지며 소리나는데 그 형태가 ‘ㄱ’의 모양과 유사하다.
- ② ㉡: 기본자 ‘ㅅ’에 획을 하나 더하여 ‘ㅆ’을, ‘ㅆ’에 획을 하나 더하여 ‘ㅉ’을 생성해냈다.
- ③ ㉢: 하늘(天)의 둥근 모양을 본떠 ‘ㅇ’를, 땅(地)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 ‘ㅡ’를, 그 하늘과 땅 사이의 사람(人)의 모습을 본떠 ‘ㅣ’를 만들어 이를 모음의 기본자를 삼았다.
- ④ ㉣: ‘ㅣ’와 ‘ㅡ’를 결합시켜 ‘ㅍ’를 만들어내고, ‘ㅇ’와 ‘ㅌ’를 결합시켜 ‘ㅊ’를 만들어냈다.
- ⑤ ㉤: ‘보아서>봐서, 쓰이어>쓰여, 사이>새’ 등이 있다.

어휘>

04\_ <보기>의 어휘들을 잘 보고 아래의 괄호[ ]에 알맞은 말을 넣어 보시오. 어휘는 한 번 씩만 사용합니다.

보기

창궐猖獗 / 생경生硬 / 기피忌避 / 존망存亡  
 겸비兼備 / 구비具備 / 상장上場 / 예비豫備  
 상비常備 / 날조捏造 / 협의狹義 / 광의廣義

- ① 하늘이 흐린 것을 보니 외출 전 우산을 [ ]해야 하겠군.
- ② 이상하게 이번 여름엔 장 질환이 [ ]해서 여러 사람이 고통 받았다.
- ③ 공부를 할 때는 연필 뿐 아니라 지우개도 [ ]하는 것이 찻찻함을 막는 길이다.
- ④ 시험 시간에 [ ]한 어휘를 본 순간 미리미리 어휘를 좀 챙겨둘걸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 ⑤ 그는 밖에 있을 땐 비가 오는 것을 마음 속 깊이 [ ]한다.
- ⑥ 시험을 잘 못 보았다고 인생의 [ ]을 논하는 것은 대단히 선부른 판단이란 말이다.
- ⑦ 소화기관이 불량한 그는 늘 소화제를 [ ]하고 다닌다.
- ⑧ 편의점에 소화제가 [ ]되어 있지 않아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 ⑨ [ ]는 대상이 지닌 좁은 의미로서의 의미를 말한다. 마치 대상의 그저 안 좋은 심리 상태를 갈등이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 ⑩ [ ]는 대상이 지닌 넓은 의미로서의 의미를 말한다. 마치 대상이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의 상황에서 고심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처럼.
- ⑪ 구멍가게였던 그 회사가 어느새 커서 주식회사가 되어 자사의 주식을 증권에 [ ]했다.
- ⑫ 선장이 세속적인 가치에 관심이 없다고 [ ]하는 세력이 있다.



문학> 고전문문편>

- 01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엇더하고
- 02 넷 사람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 03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흔 이 하건마는\*
- 04 산림(山林)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맛를 것가
- 05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피 두고
- 06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여서라
- 07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 08 도화 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뛰여 잇고
- 09 녹양 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
- 010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 011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헌스럽다\*
- 012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 013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
- 014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이 다룰소나
- 015 시비(柴扉)에 거러 보고 정자(亭子)애 안자 보니
- 016 소요음영(逍遙吟詠)\*하야 산일(山田)이 적적(寂寂)흔디
- 017 한중진미(閒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 018 이바 니웃드라 산수(山水) 구경 가자스라
- 019 답청(踏靑)\*으란 오늘 하고, 욱기(浴沂)\*란 내일(來日) 하세
- 020 아춤에 채산(採山)하고, 나조히 조수(釣水)\*하세
- 021 꺾 괴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 노코
- 022 곳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 023 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 024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 025 준중(樽中)\*이 뷔엇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 026 소동(小童) 아히드려 주가(酒家)에 술을 물어
- 027 얼운은 막대 집고 아히는 술을 메고
- 028 미음완보(微吟緩步)하야 시냇?의 호자 안자
- 029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 030清流(清流)를 굽어보니 셔오느니 도화(桃花) | 로다
- 031 무릉(武陵)이 갓갑도다 저 미이 권 거인고
- 032 송간(松間) 세로(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 들고
- 033 봉두(峰頭)\*에 곱피 올라 구름 소기 안자 보니
- 034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이 버러 잇니
- 035 연하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재פת는 듯
- 036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홀샤\*
- 037 공명(功名)도 날 싹우고\* 부귀(富貴)도 날 싹우니
- 038 청풍명월(淸風明月) 외에 엇던 벗이 잇스올고

-정극인, '상춘곡'@17E수특

- \*홍진: 번거롭고 속된 세상.
- \*하건마는: 많건마는.
- \*수간모옥: 작은 초가.
- \*울울리에: 뻘뻘하게 우거진 속에.
- \*풍월주인: 자연을 즐기는 사람. 소동파의 「적벽부」에 나오는 표현.
- \*몰아 낸가: 말아(마름질하여) 내었는가?
- \*조화신공: 조물주의 신비스러운 능력.
- \*헌스럽다: 야단스럽다.
- \*소요음영: 나직이 시부(詩賦)를 읊조리면서 거니는 것.
- \*한중진미: 한가한 가운데서 맛보는 참된 즐거움.
- \*답청: 봄에 파랑게 난 풀을 밟음. 청명절(淸明節)에 교외를 산

책하며 자연을 즐기는 풍습.

- \*욕기: 기수에서 목욕함.
- \*조수: 낚시질.
- \*준중: 술독.
- \*봉두: 산봉우리.
- \*천촌만락: 수많은 촌락.
- \*연하일휘: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
- \*금수: 수놓은 비단.
- \*유여홀샤: 넘치는구나.
- \*싹우고: 꺼리고. 싫어해 따르지 않고.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02\_출제자의 [시어읽니]

- ① 01행> 작품의 흐름으로 볼 때, '홍진'은 (□자연 / □속세)의 상징적 의미로 볼 수 있고, '엇더하고'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 /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② 02행> '넷 사람'은 (□화자와 유사하게 풍류를 즐기던 사람들 / □화자와 달리 세속적 가치를 지향했던 사람들)로 볼 수 있다.
- ③ 03행> '날만흔 이 하건마는'을 통해 화자가 (□매우 특별한 사람 / □매우 평범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 ④ 04행 > '지락'은 (□지극한 즐거움 / □욕 나오는 고달픔)의 의미로 볼 수 있다.
- ⑤ 05행> '수간모옥'을 통해 화자의 가치관이 (□안빈낙도와 안분지족에 / □부귀와 공명스런 삶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⑥ 06행> '풍월주인'은 (□자연을 즐기며 사는 / □실제의 공간을 소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⑦ 07행>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 '엇그제'는 지난 (□봄 / □여름 / □가을 / □겨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⑧ 08-09행> 에서 두드러지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대조 / □대구)를 들 수 있다.
- ⑨ 11행> '헌스럽다'가 문맥적으로 (□야단스러운 만큼의 아름다운 풍경을 / □야단스러운 만큼의 복잡한 광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⑩ 12행> 작품의 흐름으로 볼 때, '우는 새'는 (□즐거워서 지저귀는 / □우울해서 흐느끼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 ⑪ 14행> 에서의 '물아일체'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행으로 (□04 / □08 / □12 / □16 / 20□ / 24□ / 28□)행을 골라볼 수 있다. (한 행만 고르시오)
- ⑫ 16행> 작품의 흐름으로 볼 때, '적적'하다는 표현은 화자의 (□쓸쓸한 모습 / □한가로운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⑬ 17행> '한중진미'는 (□한가롭고 즐거운 / □적적하고 쓸쓸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 ⑭ 22행> 의 화자의 모습에 잘 어울리는 어휘로 (□풍류 / □체념)을/를 꼽을 수 있다.
- ⑮ 30-31행> 주로 드러나는 정신적 세계관은 (□유가 / □불가 / □도가)이다.
- ⑯ 31행> 화자는 현재 무릉에 (□있다 / □없다)



03\_[빠]르게[바]르게

- ①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② 대구의 형태를 이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③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④ 다양한 형태의 감각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⑤ 대립적 이미지의 공간을 배치하여 시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X
- ⑥ 공간의 이동에 따라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달리 드러내고 있다. O/X
- ⑦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와 자연 공간에 대한 애정이 동시에 드러나 있다. O/X
- ⑧ 대상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생각을 부각하여 드러내고 있다. O/X
- ⑨ 작품이 진행되며 품었던 심리적 갈등이 점차 해소되는 방향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O/X
- ⑩ 다양한 형태의 설의적 표현을 통해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O/X



문학> 현대운문편>

[가]

- 01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 02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 03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 04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 05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 06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 07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 08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 09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10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한용운, '님의 침묵'@17E수특

[나]

- 01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 02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 03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 04 이다지도 욱될까.
- 05
- 06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 07 —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 08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 09
- 10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 11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 12 — 그때 그 젊은 나이에
- 13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 14
- 15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 16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 17
- 18 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 19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 20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윤동주, '참회록'@17E수특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가] ⇨

[나] ⇨

02\_출제자의 [시어뒀니]

[가]

- ① '님'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② '푸른산빛'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③ '작은 길'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④ '옛 맹서'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⑤ '티끌'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⑥ '첫 키스'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⑦ '귀먹고', '눈머'니 것은(□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⑧ '이별'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⑨ '슬픔의 힘'(□관찰은 / □안 관찰은 / □돌 다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⑩ '정수박이'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⑪ '염려'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⑫ '믿음'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⑬ '사랑의 노래'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⑭ '님의 침묵'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⑮ '님의 침묵'은 (□부재하는 듯 존재하는 대상의 모습 / □존재하는 듯 부재하는)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나]

- ⑯ '구리 거울'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⑰ '내 얼굴'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⑱ '어느 왕조'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⑲ '나'의 '참회의 글'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⑳ '만 이십 사 년'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㉑ '내일이나 모레'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㉒ '그때 그 젊은 나이'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㉓ '밤'은 (□성찰과 정확의 / □자조와 후회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㉔ '거울'은 (□외부로의 / □내밀한)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㉕ '손바닥'과 '발바닥'은 (□열성의 / □건성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㉖ '운석'은 (□상승의 / □하강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㉗ '슬픈 사람'은 (□나를 / □남을) 형상화 한 이미지로 볼 수 있다.



03\_[빠]르게[바]르게

- ① 가와 나 모두 영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O / X
- ② 가는 나와 달리 점층적 표현 기법으로 화자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O / X
- ③ 가와 나 모두 대조적 이미지의 시어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 X
- ④ 가는 나와 달리 대구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O / X
- ⑤ 가와 나 모두 직유법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O / X
  
- ⑥ 나와 달리 가는 모순 형용을 통해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O / X
- ⑦ 가와 나 모두 설의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강조하고 있다. O / X
- ⑧ 가와 나 모두 감각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객관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O / X
- ⑨ 나는 가와 달리 경어체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O / X
- ⑩ 나와 달리 가는 작품이 진행되며 시적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다.\* O / X
  
- ⑪ 가와 나 모두 독백의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 X
- ⑫ 가와 나 모두 하강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 X
- ⑬ 가와 나 모두 방향성을 갖는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가 경험하는 부정적 상황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O / X
- ⑭ 가와 달리 나는 화자의 반성적 태도가 작품의 바탕이 되고 있다. O / X
- ⑮ 가와 달리 나는 시적 자아의 객관화가 드러나 있다.\* O / X
  
- ⑯ 가와 나 모두 화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개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O / X
- ⑰ 가와 달리 나는 명령형 어미를 통해 시상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O / X



## 문학 &gt; 고전소설편 &gt;

- 01 [앞부분 줄거리] 중국 송나라 문제 때 승상 조정인이 이두병에게 참소를 당하여 죽자, 외아들 조웅은 이두병의 모략을 피해 어머니와 함께 도망간다. 온갖 고생을 하며 유랑하던 조웅은 월경대사와 철관 도사로부터 병법과 무술을 전수받는다. 이두병은 송나라 태자를 유배 보낸 후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다. 서번은 송나라 침입을 위한 전초전으로 위를 침범하고, 조웅은 위를 구하기 위해 출전한다.
- 02
- 03 위왕이 장대에서 보다가 뜻밖에 난데없는 비장이 나가 번장을 베고 나는 듯이 본진으로 들어오거늘, 실로 꿈같은지라. 극히 괴이하여 바빠 나와 맞아 장대에 올려 앉히고 황망히 치하를 무수히 하였다. 웅이 대하에 내려 땅에 엎드려 죄를 청하며 말하기를
- 04 “소장이 군영 밖의 사람으로 진중에 와 고하지도 아니하고 전쟁에 참여하였사오니 죄를 받고자 합니다.”
- 05 위왕이 칭찬하여 말하기를,
- 06 “과인이 지각이 없어서 장군을 멀리 나아가 맞아 오지 못하여 과인의 잔명이 오늘날 다하게 되었더니, 천만뜻밖에도 장군기와 목숨을 보전하오니, 바라옵건대 장군의 거주와 존호를 알고 싶소이다.”
- 07 웅이 다시 땅에 엎드려 처음부터의 근본을 자상히 아뢰니, 왕이 대경실색하여 웅의 손을 잡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 08 “장군의 부친은 곧 과인의 죽마고우라. 이제 그대를 보니 벗을 대면한 듯, 일변 반갑고 일변은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오.”
- 09 하고 다시 묻기를,
- 10 “그대의 소식을 모른 지 오랜지라. 어디서 이리 오며, 대국 소식을 대강 설화하라.”
- 11 웅이 눈물을 흘리며 이두병이 송을 멸하고 천자가 되어 송 태자를 태산부 계량도에 안치한 사연과 모자 망명하여 다니는 곡절을 아뢰었다. 위왕이 듣고 기절하여 엎어지니 좌우 제신이 구하매, 왕이 진정하여 대국을 향하여 사배 통곡하니, 그 충성이 본디 거룩한지라. 웅이 위로하여,
- 12 “큰일을 당하여 아직도 도적을 멸망시키지 못하였사오니, 평국(平國)하은 후에 이로부터 하실 일이 많을 것이오니 너무 슬퍼 마십시오.”
- 13 라고 말하니 위왕이 정신을 진정하여 승전할 모책을 의논하더라.
- 14
- 15 [중략 부분 줄거리] 조웅은 위왕을 도와 서번을 격퇴하고 항복을 받은 후 태자를 구출하기 위해 태산부에 있는 섬인 계량도로 간다.
- 16
- 17 미인이 거문고 타기를 그치고 눈물을 비 오듯 흘리니, 만조 제신이 또한 비참하여 일시에 일어나 사배하고 물러나 돌아갔다. 원수가 몸을 솟구쳐 나는 듯이 들어가 태자 앞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사배하고 아뢰기를,
- 18 “소신은 전조 충신 조정인의 아들이온데 태자의 옥체를 안녕하옵시나이까?”
- 19 하니, 태자가 크게 놀라고 낮빛이 변하여 말하기를,
- 20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귀신이나 사람이냐? 귀신이 아니면 어찌 이곳을 왔으리오?”
- 21 하며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못 하시거늘, 원수 붙잡고 위

- 로하여 말하기를,
- 22 “잠시 진정하십시오.”
- 23 하니, 태자가 눈물을 거두며 말하기를,
- 24 “어찌하여 사지(死地)에 왔는가? 과인은 신운이 불길하여 목숨이 경각에 달렸기에 생전에 다시 만나기가 꿈박이요. 옛일을 생각하니 또한 꿈이라. 여덟 살 때에 서로 보고 이제야 다시 보니 반갑기가 그지없고 슬픔이 헤아릴 수 없도다.”
- 25 원수가 묻기를,
- 26 “저 여인은 누구라 합니까?”
- 27 태자가 말하기를,
- 28 “매화라 하는데, 이 계량도의 관비라. 이 계량도 별장의 이름은 백성취라 하는데 또한 충신이다. 이리로 온 후 별장의 관대함에 힘입어 편히 머물렀으니 실로 바라지 못했던 일이다.”
- 29 또한 저 아이를 시종들 여자로 정하여 주기에 데리고 수회(愁懷)를 위로한 일이며, 또한 고국 충신들이 따라와 있는 일이며, 명일 진시에 사약하는 일과, 이 섬에 있는 충신들을 모두 내일 나거(拿去)\*하는 일 등이 모두 다 태산부 자사가 장문(狀聞)을 올려서 이렇게 된 사연임을 이야기하며 통곡하였다. 원수 또한 슬픔을 헤아릴 수 없으나 위로하여 말하기를,
- 30 “지금 일이 급하옵고 소신이 싸우기에 유리한 진세에 둔병(屯兵)하고 태자의 존망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소신이 이제 급히 나가서 군사를 거느리고 와 태자를 모셔 갈 것이니 옥체를 보중하옵소서.”
- 31 하고는 즉시 하직하고 나왔다.
- 32 이날 새벽 네 시경에 계명성이 나니, 모든 충신들이 각각 처소로 돌아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시에 나와 태자전에 하직 인사하러 들어갔더니, 태자 등불을 밝히고 얼굴에 희색이 가득하였다. 모든 충신들이 엎드려 아뢰기를,
- 33 “태자의 용안에 희색이 있사오니 연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 34 태자가 말하기를,
- 35 “내가 즐거운 까닭은 매화가 아느니라.”
- 36 하니 여러 신하들이 반겨 나와 매화에게 물으니, 매화가 웃으며 붉은 입술을 잠깐 열어 맑은 노래 한 곡을 울리니 그 노래에 하였으되,
- 37
- 38 [A] 『산중의 어젯밤 비에 봄소식 들어 보았는가?  
39 오며 아니 옴은 설매(雪梅) 네 알리라.  
40 매화야 알련마는 양류(楊柳) 알까 하노라.』
- 41
- 42 모든 충신이 그 노래를 듣고 크게 기뻐하여 원수가 오기를 고대하더라. 이날 밤에 원수가 집에 돌아와 여러 장수들을 불러 말하기를,
- 43 “그대 등은 이리이리하라.”
- 44 약속을 정하고 군사를 몰아 급히 계량도로 가니, 날이 벌써 밝아 진시가 되었다. 원수가 마음이 바빠 칼을 들고 몸을 날려 별궁으로 다다라 들어가니, 벌써 봉명(奉命) 사신이 약그릇을 내어 오고 모든 충신들을 다 결박하였거늘, 원수가 분기충천하여 약그릇을 빨리 물리치고 칼을 들어 봉명 사신의 목을 치니 머리가 땅에 떨어졌다. 원수가 군사를 재촉하여 ‘모든 충신을 다 끌러 놓아라.’ 하고 태자 앞에 엎드려 사배하니, 태자가 정신을 겨우 차려 원수의 손을 잡고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말하기를,



45 “꿈인들 이러하겠는가? 행여 꿈을 깰까 염려하노라.”

46 “안심하옵소서.”

47 하고 충신을 모두 당상에 올려 영접하니, 태자 매우 바쁜 사이에 혼을 잃어 실성한 사람 같았다.

\_작자 미상, '조웅전'@17E수특

\*나거\_잡아감.

01\_정리없는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02\_[빠]르게[바]르게

- ① 이야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서술자가 개입해서 인물의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O/X
- ② 공간적 배경이 전환되며 주인공의 능력이 부각되고 있다. O/X
- ③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인공의 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O/X
- ④ 삽입된 운문을 통해 미래의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O/X
- ⑤ 주인공과 반동 인물의 모습을 통해 선과 악이 이분법적으로 대조되고 있다. O/X
- ⑥ 인물의 대사에서 이야기가 빠르게 진행될 때 쓰이는 상투적 표현을 발견할 수 있다.\* O/X
- ⑦ '조웅'은 송나라에 침입한 서번을 제압하기 위해 위나라로 향하게 된다.\* O/X
- ⑧ '위왕'은 '조웅'의 솜씨에 감탄을 드러낸다. O/X
- ⑨ '위왕'과 '조웅'은 서로에게 예禮를 갖춰 대하고 있다. O/X
- ⑩ 이야기가 진행되며 '위왕'과 '조웅'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O/X
- ⑪ '위왕'과 '조웅'은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O/X
- ⑫ '태자'와 '조웅'은 어려서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O/X
- ⑬ 상황 때문에 '조웅'은 '태자'와 일시적으로 헤어지게 된다. O/X
- ⑭ '조웅'의 부재로 '태자'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라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O/X
- ⑮ 당시 '송'은 내우외환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O/X
- ⑯ '태자'가 이야기하기 전까지 '태자'와 함께 있던 '충신들'은 '원수'가 '계량도'로 온 사실을 알지 못했다. O/X
- ⑰ 문맥상 [A]의 '산중'은 '위나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X
- ⑱ 문맥상 [A]의 '봄소식'은 '원수'의 방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X
- ⑲ 문맥상 [A]의 '설매'는 '태자'와 '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O/X
- ⑳ 문맥상 [A]의 '양류'는 계량도의 충신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O/X



문학> 현대소설편>

- 01 “유대, 넌 알 거다, 형우를 때린 놈들이 '[기표네 패]'라는 걸 말이다.”
- 02 “형우가 그렇게 말했나요?”
- 03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건 틀림이 없다. 기표 놈이 아니곤 그런 짓을 할 놈이 없다.”
- 04 담임은 혈떡거렸다. 양같이 순하게 길들여졌다고 확신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질타하고 있을 것이다.
- 05 “선생님, 형우가 뭘 잘못했다는 걸까요?”
- 06 내가 짐짓 떠보았다.
- 07 “형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잘못하기는커녕 형우가 그놈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넌 모를 게다.”
- 08 담임 선생은 몹시 흥분하고 있었다. 기표에 대한 '[혐오감]'으로 해서 얼굴이 벌겍게 달아올랐다. 기표를 미워하다니. 나 역시 담임 선생에 대한 '[적대감]'으로 몸을 떨었다.
- 09 “웬니까, 선생님. 형우가 기표를 위해서 무얼 했던 말입니까?”
- 10 내 반감 짙은 어투에 놀랐는지 담임 선생은 좀 멈칫했다. 그러나 곧 비웃음 섞어 말했다.
- 11 “인마, 나는 다 알고 있어. 기표가 저질러 온 짓 말이다. 유대, 너도 기표한테 당했잖아! 그리고 너희들이 그놈들 부정행위를 거들어 준 것도 알고 있다.”
- 12 그랬겠지. 나는 속으로 신음처럼 중얼거렸다. 무서웠다. 어른들의 음흉스러운 심보, 알면서도 모른 체 시치미를 뚝 그 저의는 무엇인가.
- 13 형우는 우리들 사이에서 일약 '[영웅]'이 돼 버렸다. 예상 안 한 건 아니지만 그 여세는 보통이 아니었다. 3학년에서도, 1학년 하급생들도 2학년 13반 임형우가 입에 올랐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도 끝내 그 상대를 입에 올리지 않음으로 해서 형우의 존재는 풍선처럼 부풀었다.
- 14 기표가 그 사건 다음 날부터 내리 사흘이나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도 재수파들은 학생부에 불러 가지 않았다.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 15 담임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기표를 찾기 위해 뚝방 동네를 연이틀이나 헤맨 사실도 학교에 널리 알려졌다. 기표가 학교에 나온 날 담임은 조회 시간에 간단히 말했다.
- 16 “최기표 군은 그동안 피치 못할 가정 사정으로 결석했다. 앞으로 다시는 결석이 없을 것으로 안다.”
- 17 항상 뺏뺏하게 쳐들고 앉았던 기표의 고개가 잠깐 숙여지는가 싶게 느껴졌다. 그것은 이상한 조짐이었다.
- 18 형우가 병원에서 퇴원을 해 2주일 만에 학교에 나왔다. 악수 세례가 쏟아지고, 등을 두드리고, 체육 시간에는 행가래까지 시키려고 했지만 형우가 도망을 쳤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은 숨죽여 기표의 동정을 살폈다. 그러나 그의 차가운 시선에 부딪힌 아이들은 섬뜩한 느낌으로 고개를 돌리곤 했다. 나는 후우 — 가슴을 쓸어내렸다.
- 19 “형, 우리 미술 시간에 라면 먹으러 갈까?”
- 20 내가 말을 건넸다. 우리들은 가끔 후동 교사 뒷담을 넘어 구멍가게에서 라면을 사 먹은 다음 감쪽같이 들어오곤 했다. 재수파들이 그 전문이었던 것이다.
- 21 “필요 없어.”
- 22 기표가 쳐다보지도 않은 채 통명스럽게 뺐었다. 그는 국어책을 읽고 있었다. 안톤 슈나크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울음

- 우는 아이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 23 다른 반 애들이 말했다. 선생들이 교실에 들어올 때마다 임형우의 일화가 예로 들어지면서, 학우를 아끼고 의리로써 지켜준 참다운 우정과 반의 결속을 위해 담임 선생과 함께 '[남모르게 애써 온 그 숨은 이야기]'가 술술 펼쳐지더라는 것이다. 교정에 모여 선 아이들도 입에 입에 형우의 얘기로 만발했다.
  - 24 “[우리들이 커닝을 도와준 것]이 기표의 비위를 상하게 한 모양이지?”
  - 25 병원에 있을 때는 남의 눈을 생각해 못 물어본 걸 하룻길 둘만의 자리가 됐을 때 내가 넌지시 물어보았다.
  - 26 “글쎄 그런 것 같았다.”
  - 27 형우가 짐짓 좌우를 둘러보면서 대답했다.
  - 28 “그때 그 일, 담임 선생님이 시켜서 한 거지?”
  - 29 내가 넘겨짚자 형우가 한순간 당황하는 것 같았다. 언제고 밝히고 싶었던 것이라 나는 다시 다그쳤다.
  - 30 “그렇지?”
  - 31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문제를 담임 선생님과 의논한 건 사실이다.”
  - 32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냐?”
  - 33 “아니다. 담임 선생님이 기표를 나한테 일임하겠다고 말했기 때 문이다. 선생님은 기표를 '[구원]'해 주고 싶었던 것이다.”
  - 34 “그랬겠지. 형우야, 넌 지금 네가 기표를 구원했다고 보니?”
  - 35 “아직 완전히는…… 그러나 멀지 않았다.”
  - 36 나는 웃어 주었다.
  - 37 “기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걸. 형우, 네가 구원해 주고 있다고 말이야.”
  - 38 “[“그것은 기표가 생각할 일이 아니다.”]
  - 39 “무슨 뜻이냐?”
  - 40 “우리가 무서워했던 건 기표가 아니라 기표를 둘러싸고 있는 재수파들이었다.”
  - 41 “그런데?”
  - 42 “이제 그 조직은 없어졌다.”
  - 43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냐?”
  - 44 “내가 병원에 있을 때 그 애들이 모두 나한테 사과하러 왔었다. 하나하나 서로가 모르게 다녀갔다.”
  - 45 “기표두 왔었니?”
  - 46 내가 혈떡이면서 물었다.
  - 47 “오지 않았다. 그러나 난 '[그런 놈]'한테 사과도 받고 싶지 않다.”
  - 48 그럴 테지. 나는 후우 가슴을 쓸어내렸다.
- 49 <종락>
- 50 “담임 선생님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친구 하나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힘을 합쳐 그 친구를 구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51 이렇게 서두를 잡은 형우는 언젠가 하룻길에서 내게 들려준 기표네 가정 형편을 반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형우의 허였다. 나한테 얘기를 들려줄 때의 그런 적대감은 씻은 듯 감추고 오직 우의와 신뢰 가득한 말로써 우리의 친구 기표를 미화하는 일에 열을 올렸던 것이다.
  - 52 기표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는 정경이며 기표 어머니의 심장병, 그러한 부모들을 위해서 버스 안내원을 하던 기표 여동생의 눈물겨운 얘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기



표네 식구들의 배고픔이 눈에 보이듯 열거되었다. 그런 가난 **03** <보기>와 제시문을 바탕으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에서도 가난을 결코 곁에 나타내지 않고 묵묵히 학교에 나온 기표의 의지가 또한 높게 치하되었다. 더구나 그런 가난 속에서 유급을 했기 때문에 1년간의 학비를 더 마련해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얘기도 우리들 가슴에 몽글 뭉글 던져 주었다.

53 “나는 얼마 전 기표가 버스 안내원을 하던 여동생을 몹시 때린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동생은 몸이 약해 버스 안내원을 그만두었던 것인데 생활이 더 어렵게 되자 돈을 벌기 위해 술집에 나가기로 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동생이 앞으로 어떤 무서운 수렁에 떨어져 내릴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54 반 아이들은 사뭇 숙연한 자세로 형우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55 형우는 기표네 가정 사정을 낱낱이 얘기함으로써 이제까지 우리에게 신화적 존재로 군림해 온 기표의 허상을 빈곤이라는 그 역겨운 것의 한 자락에 붙들어 맨 다음 벌거벗기려 하는 것 같았다. 기표는 판잣집 그 냄새나는 어둑한 방에서 라면 가락을 허겁지겁 건져 먹는 한 마리 동정받아 마땅한 ‘[벌레]’로 변신되어 나타났다.

\_\_전상국,우상의 눈물@17E수특

**01\_정리없이 정답없이 나는 막 [해시#]지**

⇒

**02\_[빠]르게[바]르게**

- ① 작품 속 인물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야기 진행되고 있다. O/X
- ② 인물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O/X
- ③ 작품이 진행되며 서술자가 교체되고 있다. O/X
- ④ 과거 회상 장면을 통해 사건의 숨겨졌던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O/X
- ⑤ 서술자가 등장 인물들 각각의 내면을 서술하여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O/X
- ⑥ 중심 인물과 사건을 둘러싸고 이야기 속 인물들의 시각 차이가 드러나 있다.\* O/X
- ⑦ 인물의 독백을 통해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⑧ 반어적 표현을 통해 상황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O/X
- ⑨ 일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⑩ 동시에 일어난, 성격이 다른 두 사건을 통해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O/X

**보기**

선장님\_‘우상의 눈물’은 우리에게 ‘폭력’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폭력’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묘한 목적을 품고 자행되는 ‘또 다른 폭력’이 그것인데요. 아래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문 ‘우상의 눈물’을 심층적으로 독해해 볼까요?

이 글의 작가 전상국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위선과 교활한 지혜는 더욱 질 나쁜 폭력이다. 권위주의 또한 내가 싫어하는 폭력이다. 그것은 은폐되는 진실에 대한 분노라고 할 수 있다. ‘우상의 눈물’은 교활한 지혜에 대한 내 나름의 분노를 형상화한 것들이다. 특히 일사불란한 힘과 우리를 위한 나의 희생을 강요하는 악랄한 선과 권위에 대한 내 생각은 주로 교단을 배경으로 전개된다."

- ① ‘담임’과 ‘형우’, ‘나’를 포함한 우리 반 친구들은 ‘기표’의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로 뭉쳐 일사불란한 힘을 발휘한다. O/X
- ② ‘담임’의 ‘혐오감’은, ‘기표’가 비행非行을 저지를 수 밖에 없던 교단의 현실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O/X
- ③ ‘나’의 ‘적대감’은 ‘담임’의 교활한 지혜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O/X
- ④ ‘형우’가 ‘영웅’이 된 모습은 또 다른 폭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O/X
- ⑤ ‘울음 우는 아이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에서, ‘울음 우는 아이’는 ‘기표’로, ‘우리’는 ‘형우’와 ‘담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O/X
- ⑥ ‘울음 우는 아이’가 ‘우리를 슬프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울음 우는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아이’에 대한 더욱 질 나쁜 폭력이 자행되었다. O/X
- ⑦ ‘남모르게 애써온 그 숨은 이야기’는 은폐된 진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X
- ⑧ ‘우리들이 커닝을 도와준 것’은 ‘기표’의 교활한 지혜에 대한 우리들의 대응책으로 볼 수 있다. O/X
- ⑨ ‘합법적’은 진실을 은폐하는 악랄한 선에 대한 ‘나’의 분노가 담긴 표현으로 볼 수 있다. O/X
- ⑩ 결과적으로, ‘구원’은 ‘기표’에게 강요된 희생이 되었다. O/X
- ⑪ ‘그것은 기표가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표현에서, 기표의 악랄함과 권위주의적인 면모가 잘 드러난다.\* O/X
- ⑫ ‘형우’의 ‘그런 놈’이라는 호칭에서, ‘형우’가 ‘기표’를 위선으로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X
- ⑬ ‘벌레’는 과거 ‘기표’의 폭력에 당했던 ‘나’의 불만 심리가 반영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O/X



문학> 수.회.시편>

01 [무대] 어떤 아파트와 회사 사무실, 그리고 길거리를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는 무대. 무대가 구태여 사실적일 필요는 없다. 대체로 무대 우측은 아파트의 실내, 좌측은 회사 사무실로 구분된다. 관객석 가까운 무대 전면은 길거리, 복도 또는 공원 구실을 한다. 관객과 아파트의 실내 사이는 그대로 트여 있지만, 그 사이에 벽이 가로막혀 있다고 상상하면 된다. 실내 앞 무대는 또한 아파트의 복도도 겸한다.

02

03 <중략>

- 04 상범: 근데 아주머니 될 분은 어떤 여자예요?
- 05 상학: 너도 잘 아는 여자지.
- 06 상범: 저도요?
- 07 상학: 요 위층에 있는 미스 박 말이야. 가정주부로서는 그만이기에.....
- 08 상범: 아니, 박용자 씨 말입니까?
- 09 상학: 그래, 아마 너도 반대는 안 할 거야.
- 10 상범: 저요?..... 아니요..... 아니요.
- 11 상학: (팔뚝시계를 보더니) 이런, 시간에 늦겠다! 그럼 내 2, 3일 내에 또 연락할게.
- 12 상범: 박용자 씨하고는 얘기가 다 뒀어요?
- 13 상학: 그럼, 인천에도 몇 번 놀러 왔었구. 약혼식은 생략하기로 했어. 결혼식도 간단히 하기로 하구. 그 때 같이 영화 구경간 것이 인연이 됐어. 그럼 몸조심해라.
- 14 상학이 걸어 나간다. 상범은 움직이지를 못한다. 잠시 그대로 서 있다.
- 15 상범: (체념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하다는 태도로) ..... 이거..... 결혼 상대자를 빼앗긴 데다가 아버지 환갑 잔치 비용도 내가 주선해야만 하는 팔자입니다. 이젠 할 말이 없습니다. 저의 나이는 서른한 살입니다. 앞으로 살아 봤자 한 20년..... 나머지 20년마저 밤낮 손해만 보는 세월일 것이라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집니다. 저는 여태까지의 모든 생활을 제가 아는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해 왔습니다. 인천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여름에 하도 무덥기에 해수욕장에 나갔죠. 갑자기 저쪽 바위 밑에 옷을 입은 채 기어 들어가는 젊은 여자를 보았습니다. 틀림없는 자살입니다. 저는 밀짚모자를 내던지고 달려가 그 여자를 끌어냈습니다. 얼굴도 예쁜데 왜 자살을 하려고 했는지. 모래 위에 끌어내서 살렸더니 그 여자는 고맙다는 말 대신에 저의 뺨을 갈겼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저를 파출소로 연행하더군요. 이 사회에선 저의 '[상식]'이 통용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물에 빠진 놈에겐 돌을 안겨 줘야겠습니다. 자리를 양보하느니 발로 걷어차 길을 터야겠습니다. 즉 기존 상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선 '[새 상식]'을 회사에서 한번 실험해 보았습니다.
- 16 무대 좌측 사무실에 불이 켜진다. 성아미가 소파에 앉아 화장을 고치고 있다. 상범이 '[엮춤]'을 들고 들어와 손질을 한다.

-(이후 부분은 '17년 EBS 수능특강' 외 부분입니다)-

- 01 성아미: 조심하세요. 총알은 다 빼고 하시오?
- 02 상범: 네, 실탄은 다 뺐습니다.

- 03 성아미: 가끔 사냥도 하시오?
- 04 상범: 사장님이 가자면 가끔 따라다닙니다.
- 05 성아미: 상범씨는..... 아직 독신이시요?
- 06 상범: 아직 장가를 못 갔습니다. .... 근데 비서님은 결혼 안 하시요?
- 07 성아미: 저요?..... 저의 남편이 돌아가신 지 8개월 밖에 안돼요.
- 08 상범: 사장님의 아드님 말이죠?
- 09 성아미: 결혼 얘기를 꺼내 저의 마음을 괴롭히지 마세요. 아직 그분을 못 잊고 있어요.
- 10 상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전화벨이 울린다. 엮춤을 친 채 상범이 받는다) 네. 네? 성아미씨요? 계십니까. (수화기 대신 엮춤을 내밀며) 박 전무님입니다. 아, 실례했습니다. (수화기를 준다)
- 11 성아미: 네, 저예요. 그분이요? 경리 보는 김상범씨예요. 괜찮아요. 네? 지금요? 아직 사장님도 계시는데..... 알겠어요. 그리로요? 혼자서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네. (수화기를 놓고 시계를 본다. 이어 사장실로 들어간다)
- 12 상범: (관객에게) 8개월 전에 죽은 남편을 잊을 수가 없었던 여자입니다. 박 전무가 전화를 하니까 대낮에 나갈 생각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런 친구들의 상식, 즉 내가 새 상식이라고 부르는 상식으로 살아갈 생각입니다.
- 13 (아미가 나와 핸드백을 들고 무대 밖으로 나간다. 상범은 총구를 그의 등에 겨눈다. 문이 열리며 사장이 나온다. 상범은 몸을 돌려 뜻하지 않게 이번에는 사장에게 총구를 들이댄다)
- 14 사장: 에이크, 이 사람이!
- 15 상범: 아이, 죄송합니다. 손질을 하고 났더니 갑자기 한 번 쏘고 싶어서.....
- 16 사장: (총을 받으며) 응, 수고했어. 경리과장은 어디 갔나?
- 17 상범: 네, 배과장은 돈 백만원을 가지고 요 앞에 있는 바구니다방으로 갔습니다.
- 18 사장: 백만원? 회사돈을.....?
- 19 상범: 네, 저보고 백만원을 달라고 하기에.....
- 20 사장: 다방엔 뭘하러 갔나?
- 21 상범: 어떤 여자가 기다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구..... 성비서는 방금 여기 에 있었는데.....
- 22 사장: 아, 비서는 이빨이 아파 치과에 갔다 온다고 나갔어..... 배과장이 가끔 돈을 가불하나?
- 23 상범: 글썄..... 가불증을 안 쓰고 가끔 돈을 가지고 나가니..... 그 돈이 가불인지 모르겠습니다.
- 24 사장: 배과장이 쓰는 돈을 잘 알아두도록 해.
- 25 상범: 네, 계산을 해놓겠습니다.
- 26 사장: 그 다방에 있는 여자가 술집 여자인가?
- 27 상범: 모르겠습니다. 하기가야.....
- 28 사장: 하기가야.....?
- 29 상범: 배과장이 약주를 참 좋아합니다. 점심 때도 가끔 한 잔씩 합니다.
- 30 사장: 회사의 돈을 맡고 있는 사람이.....!
- 31 상범: 사장님, 저..... 제가 이런 말씀을 올렸다고..... 저는 사장님을 존경하고..... 회사의 발전을 무엇보다도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교회에서 사장님의 지시를 받고.....



32 사장 : 알았어. 자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네. 잘 해보도록 해.  
\_이근삼,'국물 있습니다'@17E수특+@

01\_ 정리없이 정답없이 나는 막 [해시#]지

⇒

02\_ <보기>와 제시문을 바탕으로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보기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국물 있습니다'는 관용 표현인 '국물도 없다'를 작가가 의도적으로 변형한 표현이다. '국물도 없다'는 돌아오는 몫이나 이득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이를 통해 작가는 주인공 격 인물인 '상범'의 자각과 의식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작품 초반에 늘 타인을 배려하고 양보하던 상범은 어느 순간 자신이 아무런 실의 없는, 그야말로 '국물도 없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깨닫고 '국물이 있는' 새로운 삶의 태도를 다짐하게 된다. 한편, 작가는 새로운 형태의 무대 공간 활용, 인물과 관객과의 독특한 관계를 통해 기존 '극'과는 다른, '실험극'적인 면모도 드러내고 있다.

- ① 비구체적이고, 비분리적인 무대의 모습에서 이 작품의 실험극적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O / X
- ② 중심 인물이 현실적, 비현실적 공간을 오가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O / X
- ③ 무대 위 모든 인물들은 관객이 들을 것임을 가정하고 대사를 연기하고 있다. O / X
- ④ '엽총'과 같은, 실제로 보기 어려운 소품을 통해 '실험극'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O / X
- ⑤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소품을 통해 '상범'의 의식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O / X
- ⑥ '상범'은 자신의 애인이 '형'과 혼인하게 되었음을 알고 체념한다.\* O / X
- ⑦ '상범'은 몇 번의 유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행위에 문제가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 O / X
- ⑧ 겉과 속이 다른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상범'이 이야기한 '새 상식'의 성격을 그리고 있다. O / X
- ⑨ '엽총'은 '새 상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상범의 의사가 반영된 소품으로 볼 수 있다.\* O / X
- ⑩ '상범'은 '인천'의 '해수욕장'에서의 일로 오히려 봉변을 당하고 직업도 잃게 되었다. O / X
- ⑪ '성아미'는 '상범'이 '새 상식'을 추구하기로 한 사실을 모르고 '상범'을 편하게 대하고 있다. O / X
- ⑫ '성아미'에게 충구를 겨누는 '상범'의 모습을 통해 상범이 '새 상식'을 추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O / X
- ⑬ '사장'은 '새 상식'을 갖춘 '상범'을 탐탁하게 여기고 있다.\* O / X





+@ / +ㅈㅊㄴㅅㅁ

**[복]습이라는것이[폭]발한다**

창궐猖獗\_못된 세력이나 전염병 따위가 세차게 일어나 견잡을 수 없이 퍼짐.

생경生硬\_익숙하지 않아 어색하다.

기피忌避\_꺼리거나 싫어하여 피함.

존망存亡\_존속과 멸망 또는 생존과 사망을 아울러 이르는 말.

겸비兼備\_두 가지 이상을 아울러 갖추.

구비具備\_있어야 할 것을 빠짐없이 다 갖추.

상장上場\_주식이나 어떤 물건을 매매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소에 일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거래 물건으로서 등록하는 일.

예비豫備\_필요할 때 쓰기 위하여 미리 마련하거나 갖추어 놓음.

상비常備\_필요할 때에 쓸 수 있게 늘 갖추어 둠.

날조捏造\_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밈.

협의狹義\_어떤 말의 개념을 정의할 때에, 좁은 의미.

광의廣義\_어떤 말의 개념을 정의할 때에, 넓은 의미.

**[예]습이라는것이[폭]발한다**

"다음 호에 실릴 고전문문들은 그닥 폭발시키지 않아도 좋을 수준의 작품들이기에, 이번 호의 [예][폭]은 쉽니다. 너무 서운해 하지 마세요. 다음 호에서 또 만나요." -해적